

비정규직 해고 실태 '깜깜'

당국, 계약 해지 대상자·현황 파악도 안돼

여야 정치권의 무능으로 비정규직의 '해고 대란(大亂)'이 현실화됐으나 정부는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달 말 국회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이 무산된 뒤 현재까지 사업장의 비정규직 해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청은 시간이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만 있을 뿐이다.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별 비정규직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지난 1일 관련법 개정이 무산된 이후 어느 사업장에서 몇 명의 비정규직의 계약이 해지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도 했다.

당 업체들이 입을 다물어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나마 내놓은 조사 결과도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청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300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50여명에 그쳤다. 또 광주시청에 20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한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모두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보니 노동부가 전국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비정규직 기간 제한이 적용된 1일 이후 파악한

사태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고작 내놓은 것이 '5곳 28명',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기업 62곳' 등의 사례를 소개한 것이 전부일 뿐이고 동향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심층 분석 등은 할 수조차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전국 지방노동청의 상황실을 가동해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동향을 심도있게 파악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연례 광주청 관할 6만8천801개 사업장 52만4천78명의 현황 파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공공기관 2년 계약 만료자 57% 해고"

한국노총 고용변화 조사

공공 부문에서 근무기간이 2년을 넘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직했다는 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부터 25개 산별노조를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변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3개 공공기관에서 지난달 30일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379명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217명이 해고됐다고 5일 밝혔다. 조사된 73곳의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6천945명으로, 지난 1일자로 정규직 전환과 실적의 갈림길에 섰던 비정규직은 이들의 5.5%였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34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 2 15 28 34 45	38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467,106,543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74,418,448	23
3 5개 숫자 일치	1,547,581	1,106
4 4개 숫자 일치	60,593	56,496
5 3개 숫자 일치	5,000	960,640

팝콘복권

(제167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조	743166
2 1억	4조	354195
3 1천만	4조	563382
4 1백만	각조	78975
5 50만	각조	8780
6 2천	각조	71
	각조	31
	각조	08
	각조	9
7 1천	각조	7
	각조	6

광주수원 국민임대
6,8단지 1,942호
·점수: 7월 22일(수)-23일(목)
·장소: 주공 지역본부1층
대한주택공사
문의 062-380-0400-1,0408



1박2일용 가방으로 휴가 준비 끝 5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휴대가 편리한 보스텐백, 백팩, 힙백, 쇼퍼백 등 1박2일용 가방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벤츠 공식딜러 광주신성자동차 재오픈

서구 화정동 쇼룸 리모델링

메르세데스-벤츠 광주·전남 공식딜러인 광주신성자동차(주)가 지난 1월 광산구 소촌동으로 서비스센터를 이전한데 이어, 최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쇼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오픈했다. <사진> 200여명 규모의 쇼룸은 모델별로 최대 6대까지 전시할 수 있으며, 1·2층으로 된 복층구조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차를 감상할 수 있다. 또 광

주신성자동차는 일대일 맞춤상담을 위한 고객 상담룸과 PST(Premium Sales Tool)를 이용한 차량설명으로 메르세데스-벤츠만의 신기술과 안전장치, 옵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윤성수 광주신성자동차 대표는 "쇼룸 재오픈 후 전시장 방문고객과 문의전화량 평소보다 70% 이상 증가했다"면서 "올해 하반기 New E-Class 문전을 계기로 연간 250대 판매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수급 호전 등 긍정적 시그널 은행·건설 내수주 위주 매매

앞으로 한동안은 경제지표들의 발표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는 만큼, 경제지표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전망 및 결과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수로 작용하리라 본다. 기업들의 실적발표는 다음 주부터 봇물을 이루게 될 예정이지만,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되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에도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전해지는 바락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두 달여 동안의 박스권 장세를 거치면서 시장이 나타내는 모습은 오히려 담금질을 통해 단련되어가는 양상이다.

주식시장에서는 흔히들 말하기를 오르지 못하면 빠지게 마련이고, 빠지지 않으면 오르게 마련이라고 한다. 이 둘은 어찌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었지만 최근 두 달여 동안의 지루한 공방전 끝에 7월초부터 시작된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눈 여겨 볼만 하다. 첫째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이머징 마켓(신흥시장)의 지속적인 강세흐름이다. 이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했던 달러와세와 연계되는 부분이고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이머징 마켓에서 재개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FOMC 이후 7영업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1조 4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둘째는 내부적인 변화, 즉 기관들의 움직임이다. 6월 중반 이후로 약하게나마 투신권 주식형펀드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흐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오랜만에 감지되는 투자심리의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기금의 매물회수가 일단락되는 조짐도 보인다. 국민연금은 신규 운용사를 선정해 5천억원의 집행에 들어갔고, 연기금의 주식 매매에서도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주 코스피는 주간 1.8% 상승하면서 1,40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방향성 없는 박스권 장세에서 1,400선 회복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위에서 꼽았던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모두 수급과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에 토대를 깔아주는 성격이 강하다. 토대가 한층 탄탄해졌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튀어오르기 위해서는 모멘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주는 모멘텀 등장 여부에 주목하며 실적호전세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IT 등 수출주 보다는 은행과 건설 등 내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대응을 권한다.

박종모
굿모닝신
증권 광주
지점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우 잘 들립니다 2.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3.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227-9940
충무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익산점: 063-851-2422

조이 여행사
062-234-3222
무안 - 연길 (4박)
제주 2박3일 패키지 여행
제주 2박3일 패키지 여행
118,000
178,000
279,000

제주 2박3일 패키지 여행
118,000
178,000
279,000

일본 - 크루즈 여행
카탈리아로 떠나는 큐슈 온천 여행
4박 249,000 ~
4박 299,000 ~
4박 399,000 ~
대아고시엔리로 떠나는 대아도 여행
3박 379,000 ~
실규구 두레일빌 온천여행
4박 549,000 ~